

‘1천일’ 우크라이나 휴전협상 급물살 타나…유럽 “전쟁 끝내자”

트럼프 귀환·北 참전에 기류 급변…“영토 일부 내주고 그만” 푸틴 협조 미지수…러, 겨울 앞둔 우크라이나 전력 시설 대공세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시작된 전쟁이 1천일을 맞은 가운데 그간 협상을 통한 종전에 회의적이었던 유럽에서도 기류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우크라이나 지원 회의론자인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내년 취임을 앞둔 데다가 최근 북한군 참전으로 전쟁이 전환점을 맞이하면서 러시아가 더 큰 승리를 가져가기 전에 가능한 빨리 전쟁을 끝내는 게 낫다는 공감대가 확산하고 있는 것이다.

그간 우크라이나의 승전을 위해 필요한 만큼 지원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이었던 유럽 내 동맹국들의 분위기가 급변하면서 블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향해 러시아와 협상 테이블에 앉을 것을 요구하는 압박 강도도 높아지는 모양새다.

지난 17일(현지시간) 미 언론 등에 따르면 최근 유럽 국가들 사이에서는 협상을 통해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는 데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의 주장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이 공식적으로는 아직 우크라이나의 지원 의지에 변함이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우크라이나

가 영토를 일부 양보하더라도 지금 전쟁을 끝내는 것이 낫다는 의견에 힘이 실리고 있다.

기류 변화는 트럼프 당선인이 내년 백악관에 복귀하면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국의 지원을 완전히 끊을 수 있다는 우려에서부터 시작됐다.

현재 우크라이나 지원에 상당 부분 기여하는 미국의 무기와 예산이 사라지면 그 몫을 유럽 동맹국들이 온전히 감당해 채우기는 버거울 수 있다는 것이다.

에마누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조르제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는 이달 초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열린 정상회의에서 이러한 우려를 공식적으로 제기하기도 했다.

이에 더해 북한군까지 러시아를 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하면서 유럽 내에서는 전쟁을 여기서 멈추기를 원하는 여론이 커지고 있다.

러시아나 우크라이나와 국경을 접한 폴란드, 발틱 3국 등 동유럽 국가들은 여전히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이 외에 유럽 국가들 사이에서는 우크라이나가 현재 러시아에 점령당한 영토를



우크라이나 전쟁 반대 시위. 우크라이나 전쟁 1천일째를 맞아 지난 17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반전 시위대가 행진하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완전히 회복해 전쟁에서 승리하는 계획은 현실성이 없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

일부 유럽 외교 당국자들은 언론에 그간 우크라이나를 지지해 온 일부 유럽 국가 정부들도 현재로서 가장 희망적인 시나리오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로 서 주권을 유지해 러시아가 전쟁에서

완전히 승리하는 것만은 막는 것이라고 보고 있다고 전했다.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러시아 측과 연락을 끊었던 올라프 솔츠 독일 총리가 최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2년 만에 통화를 하면서 유럽과 러시아 간 소통의 물꼬가 트이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비록 두 정상은 통화에서 우크라이나 전쟁 해법을 두고 여전히 이견을 노출했지만, 우크라이나는 두 정상의 통화가 국제사회에서 푸틴 대통령의 고립을 완화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며 반발했다.

18일부터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우크라이나에 러시아와 휴전 협상

에 나서라는 구체적인 압박이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소식통들에 따르면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이 원하는 대로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논의를 최소 10년간 미루고, 러시아군이 점령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돈바스 지역에 비무장지대를 조성하는 내용을 제안할 계획이다.

또 이러한 조건에 응하는 조건으로 우크라이나에는 지속적인 군사 지원을 보장하고, 조성된 비무장지대에는 국제 연합군을 파병해 분쟁을 억제하는 것이 제안의 골자다.

다만 유럽 내에서의 공감대와 별개로 푸틴 대통령이 이러한 협상 제안에 어느 정도로 협조할 지 여부는 미지수다.

푸틴 대통령 입장에서는 유럽에서 협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이 현재 전쟁에서 러시아가 승기를 잡았다든 방증이 될 수 있는 만큼 협상에 나서기 보다는 이대로 전쟁을 강행할 가능성이 있다.

러시아군은 본격적인 겨울을 앞두고 지난 주말에도 우크라이나 전역의 에너지 시설에 대규모 미사일, 드론 공격을 감행하는 등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푸틴 대통령은 최근 솔츠 총리와 통화에서 러시아는 협상을 할 준비가 돼있다고 하면서 “러시아 안보 이익을 고려하고 새로운 영토 현실에 기반”해야 한다는 조건을 내건 바 있다. /연합뉴스

‘예산 절약’ 멕시코 대통령, 민항기 타고 G20 참석…“1회 경유”

前대통령이 만든 ‘원칙’ 따르기로…외교부 장관 등 동승

지난 달 취임 이후 첫 국제 다자회의에 참석하는 멕시코 대통령이 민항기를 이용해 지난 17일(현지시간) 출국했다.

클라우디아 세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은 주요 20개국 정상회의 개최지인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로 가기 위해 이날 멕시코시티 베니토 후아레스 국제공항(AICM)에서 일반 여객기에 탑승했다. 세인바움 대통령은 파나마시티에서 1차례 경유 후 목적지에 도착할 예정이라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사회관계망서비스에는 세인바움 대통령이 공항에서 시민들의 환영을 받

은 모습과 항공기 객실에서 가장 및 승무원과 인사하는 순간을 담은 사진이 게시됐다.

또 일반석 항공기 내부 통로를 걸어가며 승객과 말을 나누는 그의 뒷모습도 동영상으로 찍혔다.

멕시코 대통령이 시민과 부대끼며 민항기에 탑승하는 광경은 멕시코 국민에게 비교적 익숙하다.

이는 세인바움 대통령의 ‘정치적 후견인’으로 여겨지는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 전 대통령 때부터 관행처럼 굳어졌다.

로페스 오브라도르 전 대통령은 “과



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민항기를 타는 멕시코 대통령(왼쪽). /연합뉴스

타이태닉 승객 구조 후 받은 감사 시계 27억 낙찰

카르파티아호 선장, 침몰때 뱃머리 돌려 700명 구조

1912년 침몰한 타이태닉호 승객 700여명을 구했던 여객선 선장이 생존자로부터 선물 받은 금시계(사진)가 경매에서 27억원에 팔렸다.

AP통신은 타이태닉호 승객을 구했던 RMS 카르파티아호의 아서 로스트론 선장이 생존자들로부터 선물 받은 티파니의 18K 회중시계가 경매에서 15(만파운드(약 27억))에 낙찰됐다고 지난 1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 시계는 타이태닉 침몰로 숨진 미국 재계 거물 존 제이콥 애스터의 부인 등 3명의 생존자가 감사의 마음을 담아 로스트론 선장에 선물한 것이다.

참사에서 살아남은 메들린 애스터는 뉴욕 맨해튼 5번가에 있는 저택에서 로스트론 선장과 점심 식사를 함께 하면서 이 시계를 선물했다.

로스트론 선장은 1912년 4월15일 새벽 타이태닉호의 조난 신고를 듣고 지중해로 향하던 카르파티아호를 돌려 구명보트 20여척에 타고 있던 700여명의 승객을 구조했다. 그날의 행동으로 로스트론 선장은 영웅으로 칭송받았고 조지 5세 영국 국왕으로부터 기사 작위도 받았다. /연합뉴스



방수제 · 바닥재 · 혼화제 · 천연 황토 코팅제 건물 보수제 전문 생산업체

아직까지 방수로 고민하십니까? 기술이 필요없습니다.

방수! 바닥! 직접 공사하세요!

적용현장 및 시공범위

옥상, 외벽, 지하실, 공장바닥, 주차장, 흙집, 물탱크, 양어장, 수영장, 화장실 타일, 기와집, 내구성 및 평활성을 요구하는 현장, 기타 방수를 요하는 모든 건축물

생산 품목

[DK-301] 강력접착 도막 방수제 / 드림탄²
 [DK-303] 상도코팅방수제(녹색, 회색)셀프탄
 [DK-305] 무색침투도막방수제 / 드림데칼³
 [DK-307] 균열 보수제 / 다막스
 [DK-306] 수용성 투명 발수제 / 탑코팅
 [DK-308] 천연황토코팅제 / 황토리
 [DK-5000] 광택증진 & 오염방지코팅제 / 오염스톱

특징

- 빗물은 막고 습기는 내보낸다
- 기술이 필요없다
- 숨을 쉬기 때문에 들뜨지 않는다
- 경제적이다
- 무독성 무기질 친환경 방수제다
- 습윤상태에서도 할 수 있다
- 미끄럼, 방지기능을 한다
- 욕실 및 화장실 타일을 뜯지 않고도 할 수 있다
- 특히 인증 신기술 공법이다
- 소비자가 인정했다

※전화 문의시 방수·바닥재 관련 책자를 보내 드립니다. (제품 구입시 시외 지역은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유사품에 주의하세요

시중에 검증받지 않은 방수제품들이 난무하여 소비자들을 현혹하여 판매 및 시공하는 피해사례가 있다고 있습니다. 드림케미칼 코리아는 특허 인증 품질 보증업체입니다.

특허청

DRUM DREAM

환경을 생각하는 기업

드림케미칼코리아
DREAM CHEMICAL KOREA

전국 대리점 및 판매점 모집(무담보, 무보증)

문의 : 080-362-7788

www.dreamchemicalkorea.com